

오늘의 기사관

한여름밤 '찾아가는 예술' 공연

역사속의 오늘

뉴스퀴즈

행사 (7일)
▲경로당 기체조 교실 운영
=오후 3시 남구 진월동 대주 1차 아파트 경로당.
▲목포종합수산업상인대학 기본과정 수료식
=오전 11시30분 목포시 만호동 사무실.
(8일)
▲한부모 가정을 위한 '희망둥지 가족 캠프'=오후 1시 남원 지리산 대리리조트. 9일까지
▲한국여성유권자 전남연맹회장 이·취임식=오후 2시 전남예술고 강당.

공연
▲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 공연=7일(월) 오후 8시 순천역 광장.
▲최유형 개인전=9일까지 장광갤러리. 미 예술대학원에서 현대미술 공부하고 있는 최

운형씨의 첫 개인전.
▲한국조폐공사와 함께하는 우리 돈 이야기=9일까지 광주시립민속 박물관. 국내외 화폐 740점 전시.
▲세계의 회귀 화폐전=8일까지 광주 신세계 갤러리. 화폐수집가 강대영씨의 소장품 300점 전시.
▲파랑새는 있다=16일까지 롯데화랑. 동산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.
▲중국작가 탐마호옉의 'Sunday'전=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.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탐마호옉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.
▲국제관화워크숍=9일까지 우제길미술관.
▲무진서각 전통각자전=10일까지 북구정 갤러리.

▲동양척식회사 복원기념 특별사진전=목포시 중앙동 2가 6번지 구 동양척식회사. 목포시가 수집한 사진 200점 전시. 올해 말까지.
▲의향 호남을 말한다 '미술로 만나는 약무호남전'=9일까지 나인갤러리
▲제 7회 무등산 사랑전=11일부터 31일까지 자미갤러리. 한국화·서양화·문인화 등 51점.
▲대지의 숨결전=10일까지 자미갤러리.
▲일곡도서관 동아리 회원전=31일까지 일곡 갤러리. 입체 POP디자인 30점·타인형 30점·필크 20점 등 회원들의 작품 전시.
▲'그림속 동물 읽기'전=20일까지 시립미술관.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-525-0968
▲오월문학관 기획 전시회=21일부터 31일까지. 테이블·액자 등 30여점 전시.

▲김유신 세상 떠남(673)
▲나폴레옹(사진),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됨(1815)
▲국제 적십자조약 가입(1906)
▲조선총독부, 축적제도 폐지(1915)
▲박경언, 여성최초의 비행사 면허증 취득(1927)
▲인도의 시성 타고르 세상 떠남(1941)
▲친왕자 이우,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세상 떠남(1945)
▲화술원 창립(1952)
▲문화재 보호법 공포(1952)
▲장준하, 등산중 의문의 추락사(197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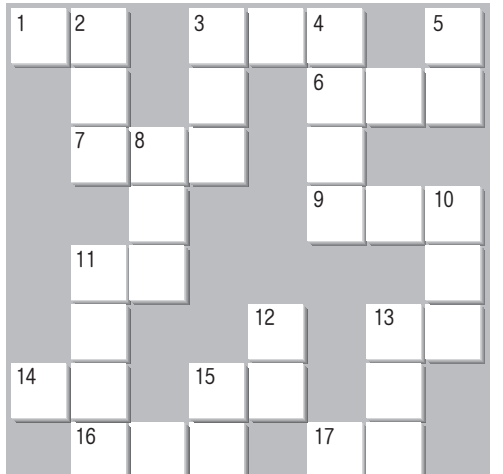
24.'아시아 홀런킹'으로 불리며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가 최근 한-일 개인통산 400 홈런의 기쁨비를 세웠습니다.
이 선수는 지난 1일 도쿄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 홈경기에서 1회 투런 홈런에 이어 9회말 끝내기 2점포시즌 33호·통산 401호를 뽐내었습니다.
이 선수의 400호 홈런은 일본의 오 사치하루(왕정치)와 미국의 알렉스 로드리게스(뉴욕 양키스)에 이어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.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.
①이승엽 ②장준호 ③김봉연 ④양준혁

참여방법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. (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)
보내실 곳
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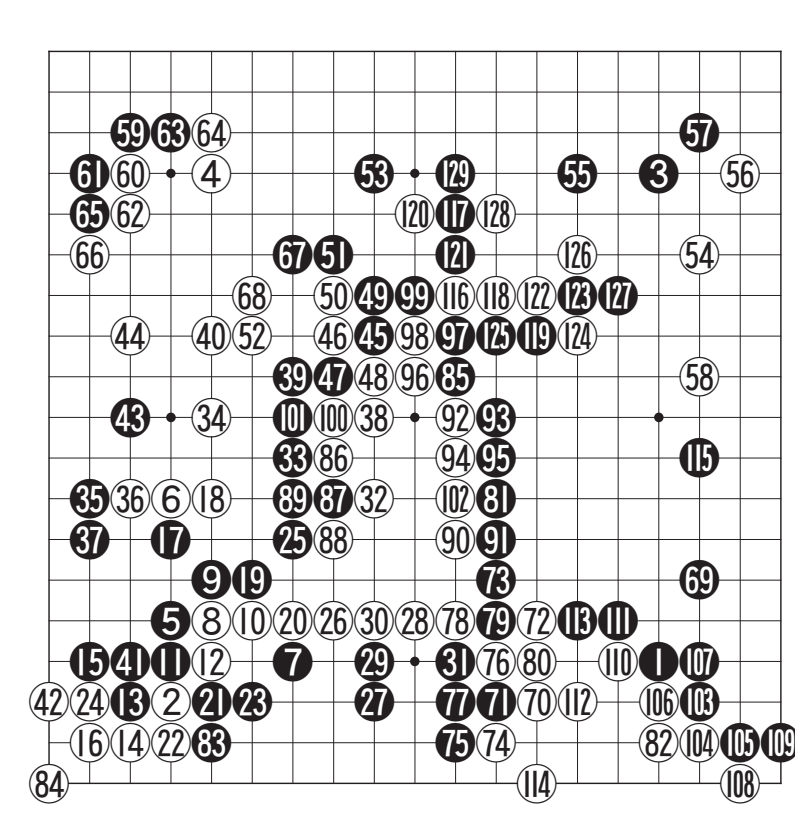
함께 풀어봅시다 <213>

→ 가로풀이
1.고구려 시조왕(BC 37~BC 19)의 이름. 성은 고씨(高氏).추모,상해,추풍,중모,도모 등으로 기록되어 전하기도 한다. 3.수확에서 네 번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의 길이가 다른 사각형.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한다. 6.바람에 불리어 휘몰아쳐 날리는 눈. ~가 휘몰아치다. 7.행정 기관의 하나. 국방부 소속으로 징집,소집 등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. 9.야구에서 타자가 이루까지 갈 수 있게 친 안타. 11.강,바다,호수,저수지 등에서 물의 높이. 13.같은 겨레.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말을 쓰는 ~이다. 14.회사에서 주는 돈이나 물품.→급료,월급. 15.주로 없거나 적다는 뜻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며 갈거나 비슷한 예를 뜻함. 그들의 잔혹한 통치 정책은 세계

에서 ~를 찾기 힘들다. 16.좋은 운수를 만나 일이 뜻대로 잘되어 가는 사람. 너는 역시 ~야. 17.악몽의 영역에 실탕을 가하거나 실탕물에 과즙,생약 등의 액을 넣어 결핵한 액체로 만든 약제를 이르는 외래어.
↓ 세로풀이
2.잠을 자다가 무엇에 이끌린 듯 일어나 떨떨하게 행동을 하며 돌아다니기도 하다가 다시 잠이 든 뒤 다음 날 아침 깨어나서는 그런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병. 3.마루바닥에 깔아 놓은 널조각.→마루판,마룻판,마룻장,창널. 4.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세로줄과 가로줄을 그린 종이.→그라프 용지. 5.거의 반 정도를 벌거벗은 몸. 8.습도와 온도가 매우 높아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날씨. 장마가 끝나고 나자 본격적인 ~가 시작되었다.



10.다른 민족을 이르는 말. 11.교육 활동의 하나로써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. 학생들이 평상시에 가보지 못한 곳에서 자연 및 문화를 실지로 보고 들으며 지식을 넓히도록 한다. 12.가죽과에서 신자가 빌 때 배우는 의식. 또는 한꺼번에 몰아치는 비난이나 공격을 비유해 이르는 말. 폭탄 ~. 13.폴란드,체코 등 유럽의 동부에 있는 여러
▲지남주 정답자
김종길·광주시 동구 운림동
김학성·광주시 북구 용봉동
▲응모방법
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, 상품권(2만원)을 선물로 드립니다.
▲보내실 곳 :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



제15회 光日盃
광주 전남 직계비속대회
정장호 5단, 4회전 진출 총보 (1~129)
白 김철5단 <PCA생명>
黑 정장호5단 <포스코>
이 대회에 처음 등장한 고수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 판은 결국 정장호 5단이 중반이후 김철 5단의 난조를 틈타 승기를 잡고 완벽한 마무리 솜씨로 승리했다.
초반에는 좌하귀에서 요즘에는 보기 드문 정석으로 서로 실착을 주고 받는 등 공방을 펼쳤는데 이때 김 5단이 백 16으로 '참고도'의 백 1, 3으로 두었으면 편한 바둑으로 일찌기

바둑소식
조한승, 박카스배 4강진출
조한승 9단과 목진석 9단이 최근 한 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1기 박카스배 천원전 8강전에서 각각 이희성 6단과 허영호 5단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.
조한승 9단과 목진석 9단은 4강전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. 나머지 4강 진출자는 이세돌 9단-이재호 2단, 서건우 3단-진동규 3단의 대국으로 가려진다.
이 대회는 예선을 통해 12명을 선발, 본선 시드자 4명을 포함 모두 16명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전기 대회 우승자는 고근태 5단이다. 우승 상금은 2천만원.
/윤영기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7일(음 7월 14일 戊辰)
子 36년생 여유로운 하루로다. 48년생 중년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. 60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들어. 72년생 사기꾼이 달려든다. 주변을 정리하라. 84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. 행운의 숫자 : 03, 32
丑 37년생 仲인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. 49년생 전화위복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라. 61년생 가내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주라. 7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. 85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한다. 행운의 숫자 : 21, 39
寅 38년생 큰 덕은 자신에 있다. 50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주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. 62년생 남과 중도를 살려야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. 74년생 욕심을 버려라.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연결된다. 행운의 숫자 : 05, 45
卯 39년생 부부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신생한다. 51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. 63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. 75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. 행운의 숫자 : 08, 43
辰 40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에게 기운다. 52년생 주변과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나 걱정은 없다. 64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. 사방이 소란하다. 76년생 매사에 조심할 때에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. 행운의 숫자 : 17, 37
巳 41년생 응호상박이니 결과는 반반이다. 53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숙고하라. 65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라. 77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니 배물림 행이 없다. 행운의 숫자 : 07, 43
午 42년생 모든 일이 천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지리한다. 54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려되니 가려서 들어라. 66년생 무리수급 하리라. 69년생 결심하라. 78년생 철학하게 사행하면 오히려 빠르리라. 행운의 숫자 : 09, 39
未 43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. 55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흥분을 조심하라. 67년생 풍상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. 79년생 재사가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. 행운의 숫자 : 14, 42
申 44년생 불행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. 56년생 어려서부터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. 68년생 재사가 순조롭게 신생한다. 80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 발을 신기다. 행운의 숫자 : 12, 34
酉 45년생 새 문서가 눈물 낸다. 57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된다. 69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. 81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나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. 행운의 숫자 : 03, 41
戌 46년생 비정함 고역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. 58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. 70년생 가정과 親人의 불려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. 82년생 짐체 속에 살리기도 있다. 행운의 숫자 : 11, 29
亥 47년생 불평사가 발생할 수다. 59년생 이해하는 풍년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. 71년생 부부사이에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. 83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진행된다. 행운의 숫자 : 01, 40

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: English (Please remind me to~), Japanese (‘アンチョコ’って、いったい なんなんだい?), Korean (我现在要退房), and Chinese (毛遂自薦 (모수자천)). Each column includes a scenario, a question, and a detailed answer in the respective language.